

논문접수일 : 2013.12.20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 신고전주의에 나타난 발레의상의 미적 특성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Ballet Costume in Neo-Classicism

**조 민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Cho, Min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 2. 신고전주의 시대의 미적특성

- 2.1. 신고전주의 시대적 배경
- 2.2. 예술분야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 2.3.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 3. 발레의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적 미적특성

- 3.1. 발레사적 배경과 특성
- 3.2. 발레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신고전주의는 한 나라에 국한된 예술사조가 아니라 그 영향력은 서양 전역으로 범위가 매우 크며, 미술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 다른 예술 분야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파되고 나타난 시대사조이다.

본 연구는 1820년대의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의 예술과 복식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발레의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미적 특성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건축, 회화, 조각, 복식 등의 예술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적 미적 특성은 객관적 조화와 단순성, 실용성, 고대 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관능미로 구분하였다.

발레의상의 신고전주의적 미적특성은 발레의상에서의 빠니에, 톤느레를 제거하고 수직적인 실루엣, 장식의 배제로 조화로운 형태의 구성 원리의 외관에서 파악된 조화와 단순성의 미적 특성과, 발레예술의 기술적, 기능적 본성을 위하여 쉬운 움직임을 위해 짧아진 스커트 길이와 높은 굽의 신발 대신 슬리퍼의 착용, 그리고 몸짓의 표현을 위해 몸에 붙는 얇은 옷 착용으로 나타난 발레의상에서의 기능의 실용성, 고전, 그리스·로마 시대의 복식 스타일과 한 겹의 얇은 머슬린으로, 로브의 발레의상으로 나타난 고대 이상의 연상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와 인간생활을 대변하는 발레의상의 신고전주의는 조형 예술을 복식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발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신고전주의, 발레의상, 미적 특성

### Abstract

Neo-Classicism is not the art trend which is only limited to one country but its influence is very vague throughout all western countries and it is the art trend that has influenced not only the arts but also the society at large and other field of arts.

In this study,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oclassical arts and fashion are considered and suggested the comparisons with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allet costum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oclassical art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s, sculpture and fashion are classified with objective harmony, simplicity, practicality, functional utility and association with ideal antiquity.

Neoclassical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allet costume are perpendicular silhouette with discarding panier and tonnelet, simplicity from elimination accessory, wearing slippers instead of high heels for ballet's technique and association with ideal antiquity wearing robe style of ballet costume.

The ballet costume that represents the social culture and human life of the age in Neo-Classicism, it expressed formative arts into fashion and suggested new direction of creating something new for ballet.

### Keyword

Neo-Classicism, ballet costume, aesthetic characteristics

## 1. 서론

신고전주의 양식은 18세기 중반에 등장, 발전하여 낭만주의가 시작하기 전인 1820년대에서 19세기 초까지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고 합리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고 이상화된 자연미와 조화미를 추구하였다. 이에 대한 추구로 인해 신고전주의의 미학 및 자율적 예술론은 과장과 왜곡으로 치달았던 바로크 양식을 극복하고 논리적이고 안정된 양식을 제공하였고, 미학적 원천은 혼란한 예술적 상황 속에서 순수한 본질과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귀족 중심의 예술문화가 시민적인 문화로 바뀌고, 기계화에 따른 기술의 발달로 옷감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근대 복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였으며(이수정, 2005), 근대 예술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동경하는 신고전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신고전주의는 한 나라에 국한된 예술사조가 아니며, 그 영향력은 서양 전역으로 범위가 매우 크고, 미술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 다른 예술 분야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파되고 나타난 시대사조이다.

발레에서 신고전주의의 예술적 가치를 볼 때, 신고전주의 발레에서는 고전발레의 전통에 대한 이해는 인습이나 오래된 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고전주의 발레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통의 정신과 규범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당대 예술의 정신적 규범으로 형식주의의 현대화로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주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등장하고 발전한 신고전주의의 예술과 복식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발레의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미적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고전주의 시대의 발레의상이 어떠한 미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시대의 사회문화와 인간생활을 대변하는 조형 예술과 복식을 함께 고찰하여 발레의상에 대한 분석에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 2. 신고전주의 시대의 미적특성

### 2.1. 신고전주의 시대적 배경

신고전주의 양식은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이는 낭만주의가 시작하기 전 1820년대의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하나의 예술양식이다. 신고전주의는 고전작품을 바탕으로 그 양식에 준거하려는 경향에 의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고전시대의 새로운 부활을 도래하게 한 역사적 현상이다. 신고전주의가 지향했던 고전시대는 그리스·로마시대였고, 건축·회화·공예·복식 등의 각 예술분야와 생활전반에 걸쳐 고대의 기풍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와 모방이 이루어졌다(이수정, 2005).

이 시기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였으며, 유럽의 문학과 예술을 지배하였다. 또한 왕족과 귀족 위주의 생활양식으로부터 평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의식이 팽배해져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해 의복재료가 풍부해져 왕족이나 귀족을 위한 패션으로부터 일반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패션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이혜주, 채연희, 2002). 이는 즉 프랑스 혁명에 의한 평등으로 서양의 복식 문화가 근대화되고, 시민 복식이 정착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기 시작 하였으며, 프랑스의 복식문화는 상위적 지위 덕분에 프랑스는 패션의 중심이 되었다(정홍숙, 1997).

이 시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직물산업, 특히 면직공업을 중심으로 의복재료의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교류 또한 활발해졌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도 산업혁명의 시작과 무늬를 입체적으로 짠 직물인 자카드 직물의 직조법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국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직적 인간관계에서, 평등한 존재로써의 인간과 인간이 평등한 상태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었다. 예술에 있어서도 더욱 자연스럽고, 인간이 중심에 있는 예술, 그리고 일정한 방법과 고정된 규칙으로 이루어내는 예술을 추구하였다.

### 2.2. 예술분야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예술 양식은 전통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고전의 정신과 규범을 존중하였다. 신고전주의의 중심적인 사상의 받침은 이러한 근대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합리주의 철학은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는 예술창작을 위하여 단순한 주관적 상상이나 감정보다 단지 사물의 본성 속에서 발견해내는 이성의 보편성(자연성)을 중요시 하였다. 이는 즉, 고대

예술의 특징인 형태의 이성적인 단순화를 선호하면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한선희, 2005). 이러한 경향은 건축, 미술, 음악, 문학, 복식 등 전 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자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인간 존중의 이념으로 형성된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건축에 나타난 신고전주의를 살펴보면 18세기 이전의 건축은 사실상 실용적인 목적보다 외관의 거대한 구조나 완벽한 비례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실용성을 갖춘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최초의 건축양식은 수플로 (Jaque Germain Soufflot, 1713-1780)의 판테옹이며, 이는 잘 알려진 생트주느비에브 성당(1755-1792)이다(한선희, 2005), [그림 1]. 이 건축물은 프랑스에서 바로크와 로코코에 반대하는 합리주의적 건축양식으로 장식이 억제되고 엄격한 추상성을 띄고 있으며, 거대한 현관은 고대 로마의 신전 양식으로부터 그대로 가지고 왔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18-1580)의 책이 최고의 건축학 교과서처럼 인식되었으며(이수정, 2005),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영국의 치즈윅 하우스(Chiswick House)이다. 이 건축물은 팔라디오 양식으로 기하학적이고 단순하며, 기본적으로 고대 예술의 분위기를 차용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높고 낮음이 적고, 장식도 절제되었다. (치즈윅 하우스, 두산백과) [그림 2]



[그림 1] 수플로의 생트주느비에브성당  
(출처: 미술대사전(인명편),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88, 한국사전연구소)



[그림 2] 치즈윅 하우스(Chiswick House, 1725)  
(출처: 마크 어빙 등(2009),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마로니에북스)

위와 같이 18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건축양식은 근대 합리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제시한 순수기하학적 형태의 건축양식이 널리 사용되었으며(한선희, 2005), 건축물에 관한 데카르트의 철학의 근대주의 취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고 단순한 형식이 강조된 단순성, 장식의 절제와 규칙적인 비례에 나타난 실용성, 고전 고대의 재인식을 기반으로 한 고대 이상의 연상성을 신고전주의에 나타난 건축양식의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신고전주의에 나타난 회화의 주제는 그리스·로마 신화가 많았으며, 소묘와 선을 중요시하고, 외곽선의 경계가 뚜렷하며, 붓자국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 Louis David, 1748-1825)이며, 그는 그림에서 고대를 발견하고자 하였고, 이상적인 미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레카미에 부인’[그림 3]의 작품은 소파와 발받침, 고대풍의 촛대를 제외하고는 장식 없이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레카미에 부인의 여성적 우아함의 이상, 고전적인 포즈, 간결한 옷과 실내는 신고전주의 미학을 잘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시대 이후 남성이 누드의 표현 대상이었으나, 신고전시대부터는 여성 누드에서만 미를 동경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는 여성의 인체에서 만족스러운 기하학적 형태와 자연스럽고 관능적인 감각을 찾아냈기 때문이다(김민자, 2004). 많은 여성의 누드 시리즈를 그리고 다비드(David)의 뒤를 이은 앙그르(Jean August Dominique Ingres, A.D. 1780-1867)는 고전미를 추구하며 형태와 선을 중요시 하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자(1808)’[그림 4]에서 앙그르는 미를 단순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간결한 선의 윤곽선으로 표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고전주의 회화에서 나타난 색채, 형태와 선의 단순성, 고전주의의 형식을 바탕으로 한 고전미, 그리고 여성의 인체에서 표현된 예리한 윤곽과 선의 자율적이고 이국적인 인체의 관능미를 미적 특성으로 들 수 있다.



[그림 3] J.S. 다비드의 ‘레카미에 부인’(1800년대)  
(출처: 김민자 등(2010),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p.284)



[그림 4]앵그르, '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자', 1808  
(출처: 김민자(2004). 『복식미학강의2』, p.76)

셋째, 조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은 로코코의 비례와 균형, 우아한 아름다움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잡한 선을 없애고 단순한 직선으로 대체하는 한편 다시 로마와 그리스적인 고전양식을 부활시켰다. 또한 그리스·로마의 부활을 목표로, 고고학적 정확성에 강한 관심을 두고 합리주의적 미학에 바탕을 두었다.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조각가로 장 앙트완 우동(Jean Antoine Houdon, 1741-1828)을 들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 작품 중 '볼테르(Voltaire 1781)'[그림 5]는 모델의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기지와 지성, 위대한 정신의 깊은 동정심과 고요함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고전적 의상인 토가에서도 어색한 곳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잡힌 주름이 옷에 나타나 고전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한선희, 2005).



[그림 5]장 앙트완 우동(Jean Antoine Houdon, 1741-1828)의 '볼테르 상(1781)  
(출처: <http://www.backtoclassics.com> (검색어: Voltaire))

당시의 조각은 기법이나 주제에 있어서 고대 작품을 기초로 제작하였으며, 가장 성장한 분야는 초상이었다. 그리스·로마 조각의 이상화된 형태와 매끈한 마무리를 위하여 재료로는 대리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조각 작품에 입혀진 고대 의상의 주름의 표현과

윤곽선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형태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미적 특성은 볼테르 작품을 대표작으로 고전적 의상인 토가에 나타난 고대 이상의 연상성과 옷의 주름에서 나타난 자연미, 그리고 옷의 형태에서 나타난 단순성을 들 수 있으며, 실제 인물의 초상에서 나타나는 엄숙성을 들 수 있다.

### 2.3.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시민사회의 성장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자연적 감성에서 발현되는 순수함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낳았다. 복식에서도 그 이전까지의 과도한 장식적이고 화려함보다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였으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이상적 복식으로 등장한 것이 고대 그리스풍의 복식이었다(김민자 외, 2010). 신고전주의 예술양식이 그 시대의 복식에 미친 영향력은 거대하였으며, 복식에서도 장식적인 로코코 귀족 스타일이 쇠퇴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하는 고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리스 복식과 같이 자연스러운 복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건축에서 나타났던 실용성과 단순성이 복식에도 나타났으며, 여성의 복식에서 코르셋(corset)을 제거하고 권위와 부를 표출하였던 러플(ruffle)등의 화려한 장식 또한 배제되어 수직적인 실루엣이 나타났다. 복식의 형태는 하이 웨이스트라인과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난 규칙적인 주름에 의한 날씬한 실루엣으로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3], [그림 6].



[그림 6] 앵그리, '리비에르', 1805  
(출처: 김민자(2004). 『복식미학강의2』, p.76)

복식의 새로운 경향은 단순하고 합리적인 형태와 색상과 직물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검은색이 남자복식에서 야회복이나 예복으로 쓰이게 되었다(이영숙, 2001). 또한 건축에서 나타난 효율성은 건강에 좋고, 활동성을 보장하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복식에도 나타났다. 신고전주의 시대 이전의 왕과 귀족은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부각시키려했지만,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들의 의복은 실용적이고 수수한 면 소재와 흰색으로 통일되고 장식이 절제된 간소한 복식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격식의 문제보다는 복식의 순수하게 기능적인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함연자, 2005).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여성복식으로 슈미즈 가운(chemise gown)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도입된 고대풍의 슈미즈 가운은 험령하고 단순한 직선 실루엣으로 하이 웨이스트이며 색은 대체로 백색이나 연한 색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미적 특성은 예술에 나타난 미적특성과 같은 맥락으로 단순성, 실용성, 효율성, 인체미 그리고 자연미를 들 수 있다. [표 1]

예술 양식	예술 양식에 나타난 특성	미적 특성
건축	· 수폴로의 생트주느비에르 성당: 할리주의적 건축양식으로 장식이 억제되고 엄격한 추상성을 띄고 있으며, 고대 로마의 신전 양식 차용. · 팔라디오의 치즈워하우스: 기하학적이고 단순하며, 고대 예술의 분위기를 차용. 자연스러움을 강조. 건물의 높고 낮음이 적고, 장식의 절제.	· 단순성 · 고대 이상의 연상성 · 실용성
회화	· 다비드의 레카미에부인: 배경의 장식 없이 간결하게 묘사. 여성의 인체에서 기하학적 형태와 인체의 관능적인 미, 형태와 선을 중요시.	· 색채, 형태와 선의 단순성 · 인체의 관능미 · 고대 이상의 연상성
조각	· 장 앙트완 우동의 볼테르: 단순한 선으로 대체, 고전양식의 부활, 고대의상의 재연, 실제 인물의 초상	· 자연미 · 고대 이상의 연상성 · 단순성 · 엄숙함
복식	슈미즈 드레스: 코르셋, 러플 제거, 날씬한 실루엣, 명료한 색과 수수한 면소재, 건강에 좋은, 활동성을 보장, 자연스러움 추구	· 실용성 · 자연미 · 단순성 · 고대 이상의 연상성

[표 1] 신고전주의 예술양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

### 3. 발레의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미적 특성

#### 3.1. 발레사적 배경과 특성

신고전주의가 발생한 18세기의 발레는 무용수, 안무가, 의상디자이너 등 발레와 관련 있는 모든 이들이 관습적인 발레 공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발레의 동작에서는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발을 높이 올리는 동작을 하기 시작했으며, 발레 의상은 전시대의 상징과 장식에 치중했던 점을 개혁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일반인들의 유행의상에 영향을 끼쳤다(이희현, 2010).

프랑스의 루이 14세(1638-1715)는 통치기간 동안 궁정발레를 최고의 절정기로 이끌었던 국왕이었고, 그는 그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춤과 음악을 위한 왕립 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당대의 유명한 무용수들을 고용하여 무용예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16세기 및 17세기는 궁정의 한 여흥으로서 발레가 상연되었고, 따라서 그 출연자들도 대부분 귀족층이었으며, 특히 남성들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발레 의상은 귀족 신분 당시의 의상과 유사한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의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작품의 등장인물에 따라 인물의 성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식물로 치장한 의상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궁정발레에서는 관습적으로 여성이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남성무용수들이 대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교한 가발과 가면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17세기 말을 거쳐 18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면서 춤과 노래를 혼합한 형태인 오페라 발레(opera-ballet)가 기존의 궁정발레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었으며, 오페라 발레는 훌륭한 무용수, 안무가, 교사들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18세기 중반부터 춤과 예술을 창작하는 안무가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발레에서 음악과 발레를 분리하여 춤을 극적인 해설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춤은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여야 했는데, 안무가들은 순전히 몸동작의 움직임만을 통해서만 의미를 풀어나가는 극적 발레(balet d'action)의 발전을 꾀하였다. 즉 극적 발레는 직업적인 무용수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여 춤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무용가 겸 안무가인 장 노베르 (Jean Georges Noverre, 1727-1810)는 그의 저서 「Letteres sur la danse et les ballet(무용과 발레에 관한 서한)」(1760)에서 극적 발레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무용예술의 내용들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노베르는 '무용은 아름다운 자연의 충실한 모방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18세기 중반 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 당시의 남자 무용수의 의상인 짧고 철사가 든 우스꽝스러운 스커트인 톤느레(tonnelet)와 무용수의 빠니에(panier)의 개혁을 강력

하게 주장하였다(이영숙, 2001). 노베르의 이 저서는 춤의 개혁을 촉구하는 수단이었고, 그는 과거의 낡아 빠진 원리들의 반발로 새로운 유형의 발레의 창조를 추구하였고 훌륭한 발레의 플롯(각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어야 하고 춤의 연기는 명료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발레 역사에서 살펴보면 1860년대에서 1890년대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태어난 뻘띠빠(Marius Petipa, 1819-1910)의 작품 활동으로 러시아의 고전주의 발레가 절정을 이루었고 동시에 러시아 무용가 미하일 포킨(Mikhail Fokine, 1880-1942)의 안무연구로 새로운 양식이 제시되면서 러시아는 발레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었다(김혜정, 2006).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왕과 귀족만이 참여하던 궁중무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탁월한 여성 무용수들의 새로운 시도로 18세기 발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뻘띠빠의 발레는 아카데미한 전통을 이어받아 엄격하고, 화려한 스텝의 사용은 고전적입 부분이었지만, 전통적 자료를 없애지 않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여 절제되고 조각 같은 선과 현대적인 스텝, 리듬과 움직임은 고전주의에 새로운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다. 이러한 발레의 새로운 시도는 동작이 자유로운 의상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이제껏 형식적으로 이어져온 장식물과 상징물로서의 의상이 아니라, 훌륭한 발레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표현적인 발레의상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이희현, 2010).

신고전주의 발레에서 나타나는 경향 중의 하나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경향(김혜정, 2006)으로 신고전주의 발레의 줄거리 또는 플롯, 의상과 무대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니멀리즘 경향으로 무용수의 동작을 강조하였고 무용과 음악이 더욱 일정해졌다.

### 3.2. 발레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18세기 이전의 발레의상은 로코코의 영향을 받아 무겁고 화려하며, 오버스커트를 걸치고 스커트의 길이가 발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는데, 노베르는 무용수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고, 그 몸매를 돋보이게 드러내는 가벼운 천으로 의상을 제작하기를 제안하였고, 무용수의 얼굴 표정이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정서와 몸짓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가면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이 시기의 남녀 무용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보다 가벼운 무대의상을 입었으며, 노베르가 비판 하였던 빠니에와 팍 끼는 바지는 고전 양식의 투명한

의상이 되었으며, 남성 무용수는 넉넉한 가운과 반바지, 그리고 스타킹으로 바뀌었고, 굽 높은 신발은 납작한 슬리퍼로 바뀌었다(이영숙, 2001). [그림 7]은 발레작품 'Castor et Pollux' (1772)공연에서 가르텔(1741~1787)역의 공연장면이다. 작품에서 가르텔은 아폴로역이 자신임을 알리기 위하여 가발, 마스크, 태양의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무용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그림 7]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난 카스토르역의 의상이며 로마전사와 같은 갑옷을 입고 있으나 스커트 부분에 슬릿을 넣어 효율성과 활동성을 주었다. 또한 활동성과 스텝을 보일 수 있도록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졌으며, 활동성을 위한 납작한 슬리퍼의 착용을 볼 수 있다.



[그림 7] "Castor et Pollux(1772)"의 가르텔  
(출처: 이영숙(2001), 『발레와 복식문화사』, 형설, p.161)



[그림 8] "Castor et Pollux(1772)"의 카스토르  
(출처: 이영숙(2001), 『발레와 복식문화사』, 형설, p.171)

노베르가 제안한 발레의상은 안무가, 무용가에게 영향을 미쳐 전 유럽에 적용되었으며, 발레의상에 대한 개혁은 당시 18세기를 대표하였던 유명한 두 무용가, 마리 카마르고(Marie Anne Cupis de Camargo)와 마리 살레(Marie Salle)에 의해 처음 표현되었다. 이 시기까지 여성 무용수들은 무겁고 넓은 화려한 스커트로 발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고, 무거운 머리장

식, 마스크, 오버코트와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1726년 데뷔하였던 카마르고는 자신의 무용 테크닉을 보여주기 위하여 스커트의 길이를 올려 발목이 보이게 하였으며, 낮은 굽의 무용 신발을 신었다. 이러한 발레의상의 개혁으로 인하여 그녀의 스타일은 즐겁고 가벼웠으며, 특히 다리를 공중에서 교차하는 등의 묘기를 보여준 첫 여성 무용수였다. 이런 계기로 인하여 여성 무용수들의 스커트 길이는 점점 짧아졌고, 그녀는 묘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스커트 길이를 종아리 중간 길이로 짧게 하였으며, 무용구두 대신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음으로써 그녀의 몸을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최초의 여성 안무가였던 살레는 수많은 혁신을 시도하였고 무용의 테크닉 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무용 철학을 주장하였다.

살레의 작품들 중 가장 유명한 '피그말리온(Pygmalion)'에서 살레의 안무는 극적인 무용수로서의 공연, 모든 뉘앙스의 표현, 움직임의 자유를 허락한 의상을 착용하였는데, 그녀는 당시 무용가의 획일적인 의상착용을 거부하고 배역의 특성과 줄거리에 적합한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무용의 본성인 감정표현을 주장하였다. 발레의상의 혁신은 유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18세기 후반에는 빠니에를 입지 않고 그리스 의상과 유사한 한 겹의 얇은 머슬린으로 만든 로브(robe)가 유행하였다. 이 작품에서 카마르고 의상은 머슬린으로 된 그리스 조각을 연상시켰고, 치마는 발목 위로 짧아졌으며, 정교한 가발과 높은 구두 대신 편안한 낮은 슬리퍼를 착용하였다.[그림 9] 또한 작품 '칼립소(Calypso, 1790)'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에 대한 내용으로 발레의상은 얇고 자연스러웠고, 그리스 여인의 의상과 유사하였다. 고전에 대한 동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로마 시대의 의상과 유사한 한 겹의 머슬린으로 만든 로브(robe)를 착용함으로써 자연성의 추구하고 동경의 회귀성 나타내었다 [그림 10]. 또한 1796년 런던에서 공연한 'Flore et Zephyre'에서 Flore 역을 한 Marie Taglioni [그림 11]의 발레의상은 톤트레와 빠니에를 거부하고 가볍고 단순한 드레퍼리(drapery) 의상으로 무용수의 몸매가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당시 연기자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스크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발레의상의 개혁과 무용철학은 1820년까지 파리 오페라 극장을 지배하였다.



[그림 9] 피그말리온(1734)의 마리 카마르고  
(Marie Anne Cupid de Camargo)  
(출처: [www.nybaroque.com](http://www.nybaroque.com) (검색어:pygmalion))



[그림 10] Rose Didelot in Calypso, 1790  
(출처:<https://balletto.net> (검색어: Rose Didelot))



[그림 11] Flore역의 Marie Taglioni,  
'Flore et Zephyre', 1796  
(출처: <http://en.wikipedia.org> (검색어: Flore et Zephyre))

발레의상은 발레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민감하게 그 변화를 수용하여 반영되었는바, 이는 무용수의 테크닉과 안무 의도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유행에도 깊이 연관되어 발레의 역사에서 혁신적 개혁의 수단과 방편으로 표출되었다. 심지어는 발레리나의 의상과 머리장식, 슬리퍼 등은 당시 여성들의 패션을 선도했던 양상을 보였으며, 발레가 당시의 민중에 삶에 상당한 문화적 밀착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박경숙, 2004).

특히 신고전주의 발레시대는 무용수와 안무가가 단순한 무용 테크닉만을 탐색한 시대가 아니라, 자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노베르에 의해 발레의상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동시대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예술양식은 타 예술 뿐 아니라, 특히 발레의상의 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이후의 발레의 철학과 발레의상의 미적특성은 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노베르의 톤트레와 빠니에의 개혁으로 인하여 표현된 발레의상의 수직적인 실루엣, 장식의 배제로 조화로운 형태의 구성원리가 명확하게 강조된 조화와 단순의 미와, 18세기 의상개혁을 불러온 대표적인 여성 무용가, 카마르고와 살레의 발레본성 속에서 발견해내는 본연의 의미를 발레의상으로 표현한 실용성과 단순의 미와 발레의상의 혁신과 함께 18세기 후반에는 빠니에를 입지 않고 고전에 대한 동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로사 시대의 의상과 유사한 한 겹의 얇은 머슬린으로 만든 로브가 유행하게 됨으로써 자연성의 추구하고 동경의 회귀성을 추구하였다. 신고전주의 발레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예술 양식	예술 양식에 나타난 특성	미적 특성
발레 의상	· Castor et Pollux(1772)의 가르델: 가발, 마스크, 태양등의 장식 소품의 착용거부	· 단순성 · 효율성 · 실용성
	· Castor et Pollux(1772)의 카스토르: 스커트에 슬릿을 줌	· 실용성
	· 마리 카마르고: 그리스 의상과 유사한 한 겹의 얇은 머슬린으로 만든 로브	· 고대 이상의 연상성 · 관능미 · 형태의 단순성
	· 칼립소의 님프(1790):로브의 착용함으로써 자연성의 추구하고 동경의 회귀성, 남성 발레의상은 넉넉한 가운, 반바지, 스타킹으로 전환, 신발은 바닥이 납작한 슬리퍼로 전환	· 고대 이상의 연상성 · 형태의 단순성 · 실용성

[표 2] 신고전주의 발레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 4. 결론

그리스·로마시대의 사회, 정치, 예술, 문화 그리고 복식 등의 분야에서 이를 이상으로 여겼던 신고전주의 시대의 예술과 복식, 그리고 동시대에 나타난 발레사적 배경과 발레의상의 예술적 미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신고전주의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였으며 이의 철학은 건축, 회화, 조각, 복식 등의 예술분야 뿐 아니라, 발레와 발레의상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예술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미적 특성을 건축, 회화, 조각과 복식의 예술양식 대하여 얻어진 미적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주의 사고의 추구에 의한 객관적 조화와 균형의 미의 개념을 특성으로 한 형태의 단순성과 둘째, 사물의 본성 속에서 미의 개념을 특성으로 한 기능의 실용성, 셋째, 고대의 모방과 순수성을 회귀하고자 하는 고대 이상의 연상성과 넷째, 관능미를 이상화하여 표현한 인체미를 인체의 관능미로 구분하였다. 각 예술양식과 복식, 발레의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표작품과 신고전주의 미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예술장르	신고전주의 미적특성	대표작품
건축	형태의 단순성	
	기능의 실용성	
	고대이상의 연상성	
회화	형태의 단순성	
	고대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관능미	
조각	형태의 단순성	
	고대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관능미	
복식	형태의 단순성	
	기능의 실용성	
	고대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관능미	
발레의상	형태의 단순성	
	기능의 실용성	
	고대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관능미	

[표 3] 예술양식과 발레의상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미적 특성

동시대 나타난 발레의상의 신고전주의적 미적특성은 발레의상에서의 빠니에, 톤트레를 제거하고 수직적인 실루엣, 장식의 배제로 조화로운 형태의 구성원리의 외관에서 파악된 조화와 단순성의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발레예술의 기술적, 기능적 본성을 위한 쉬운 움직임을 위해 짧은 스커트 길이와 높은 굽의 신발 대신 슬리퍼의 착용, 그리고 몸짓의 표현을 위해 몸에 붙는 얇은 옷 착용으로 나타난 발레의상에서의 기능의 실용성, 그리스·로마 시대의 복식스타일과 유사한 한 겹의 얇은 머슬린으로 만든 듯한 로브의 발레의상은 고대 이상의 연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미적 특성이 동시대 나타난 발레의상과 일면이 되어 예술 특성에 맞게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 것은 발레의상 역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임을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발레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제고하여 동시대 나타난 유행하는 복식 뿐 아니라 타 예술영역에 나타난 복식의 사례들을 고찰하면 현대 패션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전개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로 동시대 나타난 여성 유행복식의 변화와 미적 특성을 발레예술의 배경을 함께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여 보편적 역사성, 사회성을 밝히어 당대 나타난 문화 예술을 밝히고자 한다. 향후 발레의상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II』. 서울 : 교문사.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서울 : 교문사.
- 김혜정 (2006). 「무용사조에 나타난 발레의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크 어빙, 피터 ST (2009).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마로니에북스.
- 박경숙(2004). 발레역사의 시대별 고찰을 통한 발레 테크닉과 발레의상의 상관관계. 『한국무용사학』, 3, 81-104.
- 박경숙 (1984). George Balanchine의 예술활동이 미국 Ballet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6, 177-201.
- 서차영 (1995). George Balanchine의 Apollo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발레. 『대한무용학회』, 17, 25-47.
- 안광숙, 박명희 (2003). 19세기 문화와 의복에 표현된 복고. 『패션비즈니스학회』, 7(4), 105~120.
- 이영숙 (2001). 『발레와 복식문화사』. 형설 출판사.
- 이수정 (2005). 「신고전주의 양식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 1789-1815 슈미즈 드레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주, 채연희 (2002). 신고전주의 시대의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 나폴레옹 1세 시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5, 179-191.
- 이희현 (2010). 15세기 - 19세기 발레의상.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12(3).
- Donna Collezioni (1995). Chanel 95 AW N.42, 한국출판무역, 128.
- 정소영 (2002). 「무용 미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추미경 (1998). 현대복식에 표현된 신고전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40, 121-135
- 한선희 (2005). 「신고전주의 시대의 복식 미적 특성 연구(귀족복과 평민복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연자 (2005). 18~19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 『한국복식학회』, 55(6), 125~140.
- 함연자, 김민자 (2006).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적 양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한국복식학회』, 56(4), 148-159.
- A.Hauser, 엄무웅 외 (1981).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 Tartarkiewicz, W. 저. 이용대 역 (1998).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 Judith Chazin-Bennahum (2002). A Longing for Perfection: Neoclassic Fashion and Ballet, Fashion Theory, 6(4), 369~386.
- www.nybaroquedance.org (검색어 : pygmalion)
- https://balletto.net (검색어 : rose didelot)
- https://en.wikipedia.or (검색어 : flore et zephire)